

■ 책을 읽고 ■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 출판부, 2013), 400쪽.

신 동 규

I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 북유럽과 지중해,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비옥한 토지, 사통팔달의 교통로 등 경제 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선사시대 이래로 인구유입이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역사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졌던 프랑스는 20세기 들어 출생률의 감소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력손실로 말미암아 인구증가가 정체되면서 1930년에는 외국인 증가율이 미국을 앞지르는 주요 이민국-외국인 노동자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주요 생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파괴는 경제복구과정에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으며 아프리카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아프리카 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2대 중의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아파트와 도로의 90퍼센트를 건설”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20세기 전반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유입된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의 존재는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역사적 배경인 동시에,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어렵게 -어쩌면 불가능하게- 만드는 복잡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권의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독자가 하나의 단일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박단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은 적어도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무슬림을 상징하는 니캅을 쓴 여성과 공화국의 상징인 프랑스 삼색기 사이에 자리잡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진, 그리고 라이시떼(Laïcité)를 요구하는 군중을 향해 히잡을 쓴채 작은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합성된 이 책의 표지 사진이 보여주는 역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복잡성을 드러내 준다.

이 역설은 공화국의 상징성과 무슬림의 표상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저자가 강조하듯 “프랑스는 대혁명 이래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이라는 이념과 함께 보편주의적 전통을 추구해 왔다. [...] 즉, 공화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신이나 인종, 그리고 종교에 관계 없이’ 누구나 프랑스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6쪽). 그러나 삼색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정신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또 진정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점”(362쪽)이 저자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사실에 유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민자들의 통합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원칙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 ‘프랑스의 문화전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캅을 쓴 여성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의 행간은 프랑스 주류 문화가 만들어낸 이슬람 여성의 표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저자가 “이슬람의 세속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인 무슬림 여성의 히잡과 부르카 착용이 프랑스 사회 일부에서 크게 떠들어 대듯이 그리 심각한 차원은 아니기 때문이다”(335쪽)라고 강조 하듯이, ‘소수의 저항’하는 이미지는 무슬림 전체에 대한 ‘낙인찍기(stigmatisation)’를 하는데 효과적인 선동 장치이자 반이슬람적인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배제를 전제로 하는 - 또는 다수의 배제를 지양분으로 하는 소수의 통합 - 통합을 상징하는 공화국의 삼색기와 프랑스의 전체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도배되는 니캅을 쓴 소수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모순은 표상과 현실/원칙과 실제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

며, 이는 우리에게 항상 이 사이의 경계에서 사유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을 읽는 즐거움은 바로 이 경계에서의 줄타기가 주는 아찔함이 아닐까?

II

그러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프랑스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복잡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저자가 어떻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나갈 것인지 짐작케 한다. 제라드 누아리엘(Gérard Noiriel)의 『프랑스적 용광로(Le Creuset français)』가 프랑스 사회에 녹아들 어간 이민자 문제를 다루면서 ‘외국인’이 프랑스인화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민족정체성(identité nationale)’이 정의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설명했다면, 박단은 공화국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녹아들어가지 못한 - 또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프랑스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 이민자 집단을 추적하면서 그로부터 ‘민족정체성’ 담론이 형성되고 프랑스인의 정체성이 신인종주의와 함께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1988년 발간한 『프랑스적 용광로』를 통해 역사학자 누아리엘은 그동안 프랑스의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이민자를 주체화 시키면서, 경제발전에 능동적(aktif)으로 참여했던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가 역설적이게도 국가체제에 의해 수동적(passif)으로 규정되는 이중적인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이민현상과 민족정체성 문제를 용광로에 녹은 쇳물처럼 여러 인종이 뒤섞여 버린 프랑스 사회 내부의 시각을 통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반면에 박단은 공화국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명목적으로는 프랑스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경제·문화 각 영역의 각종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권리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포함’을 만들어 내는 기제인 ‘프랑스적 용광로’라는 매커니즘을 재고하는 것부터 사유를 시작해 ‘프랑스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러한 박단의 관점은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차별에 관한

분석을 한 역사학자인 파트릭 베이(Patrick Weil)의 연구성과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2세대가 주도하는 급진적 정치운동인 ‘공화국의 원주민(Indigène de la République)’ 운동의 담론을 분석한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박단의 분석은 이들 프랑스 지식인들의 연구와 비교해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계급, 종교, 인종, 민족 등 다양한 요소를 교차하여 비교하는 박단의 시도는 많은 부분 프랑스의 연구성과를 계승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참신하며 탄광, 학교, 방리유 등 다양한 공간을 역사 분석의 장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프랑스의 ‘민족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랑스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의 경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은 프랑스 사회에 대한 내부의 시각-프랑스인의 관점-과 외부의 시각을 교차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프랑스인이란 누구인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프랑스내의 ‘이방인들’과 공화국 원칙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에서 전간기 폴란드 광산노동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이민자, 20세기 말에 등장한 ‘새로운 반유대주의’, 이방인들의 공간으로써 방리유와 학교,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한 민족정체성 논쟁, 그리고 공화국 시민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왜 21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민족정체성’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민족정체성 문제의 정치쟁점화는 사르코지의 2007년 대통령 선거전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과 ‘우리’의 인위적 간격을 만드는 구분시도는 사회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좌파에 더 우호적인 사회문제를 주변화시킴으로써 [사르코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을 창출한 바 있다”(26쪽)는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민족정체성 담론이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화주의 통

합방식이 역설적이게도 민족정체성 담론과 만나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에 만연했던 이민자의 차별구조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 폴란드 출신의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기 사이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럽계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타국을 최종 이민지로 선택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사실은 제3공화국의 통합정책과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처우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즉 ‘떠남’을 선택함으로써 “프랑스공화국 시민으로 동화되기 어려웠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366쪽). 이를 논증하기 위해 저자는 에밀 졸라의 소설 『제르미날』과 에릭 바르비에 감독의 영화 『하얀외침, 검은 태양(원제: Le Brasier)』에 투영된 광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미지화 된 이민자들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계급의식’에 앞서 ‘민족감정’으로 부터 비롯된 문화적 차이가 프랑스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 차이의 다름을 강조하는 신인종주의적 담론과 결합된 민족정체성 논쟁과 이민자 통합정책의 한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제3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알제리 전쟁을 전후로 프랑스에 정착한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시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민자들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보수화 되고 있는 프랑스 주류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는 데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6쪽) 즉 항구적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비숙련 노동에 집중적으로 고용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고용문제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이민자 2세대, 3세대가 태어나는 시점까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히잡 금지’에서 ‘부르카 금지’로 나아가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라이시테’ 문제가 ‘세큐리테(sécurité)’에 관한 담론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제1장에서 분석한 ‘민족정체성’ 논쟁이 결국 프랑스의 문화적 ‘안보’ 담론과 직결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사회가 이방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유대인 청년 폭행사건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반유대주의 행위’의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대인혐오주의와 인종주의를 구분하면서 오늘날 유대인을 ‘특별한 이방인’으로 취급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 사건의 가해자가 아랍계 및 흑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이 폭행사건이 전통적인 반유대주의와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제4장의 분석은 이 사건의 성격이 반유대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행위로 정의하려는 정치적 표상화 작업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써 방리유와 학교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도 영화 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마티유 카소비츠의 영화 『증오 (La Haine)』를 통해 파리가 있을 때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방리유의 공간성에 주목하면서 이 곳에 만연한 실업, 가난, 멸시, 불신, 그리고 증오가 어떻게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프랑수아 베고도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클래스(원제: Entre les murs)』는 이민자 출신 중학생들과 주류사회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영화속의 상징적 사건들이 실제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이민정책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의 모습은 ‘프랑스 이민자 전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 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은 학교가 이민자들이 공화국에 통합되는데 필요한 보편적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일차적 사회화 공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영화의 원제에 등장하는 ‘벽 (murs)’이라는 단어는 “소통의 단절”을 의미 하는 것이다.(307쪽)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저자는 학교가 프랑스 주류사회와 이민자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제도가 아닌 ‘공간’으로써 이민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프랑스 내 이방인이 겪고 있는 사회통합에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2세대들이 대도시 근교에 주류 프랑스인들과 격리된 채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아래 생활하면서 제2급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세대, 민족적 기원, 성별, 혹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보일 수 있는 “프랑스 내의 무슬림들을 모두 하나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322쪽)고 주장하면서도 대다수 무슬림의 공통된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동일한 시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무슬림들이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은, 즉 ‘세속화가 덜 된 사람들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322쪽)이며 이러한 선입견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프랑스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337쪽)

결론적으로 박단은 ‘프랑스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10여년 간의 노고의 총체인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민자들이 “세속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종교 문화적 측면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IV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이 프랑스 사회가 담고 있는

민족정체성과 이민문제에 대한 내부의 시각-프랑스인의 관점-과 외부의 시각을 교차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있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저자가 서문에 밝히 듯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외국 출신의 프랑스 노동자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2세대들과의 적극적 교류는 “긴요한” 역할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경험, 삶의 방식 그리고 사회인식 등 구체적 사례들이 본 연구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듯하다. 구술사나 인류학적 접근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미시적인 묘사를 통한 이민자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현재사’를 다루고 있는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이기에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이유로 무슬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여러 기록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곳곳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중심은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무슬림의 표상과 ‘동화’와 ‘통합’의 이름으로 ‘배제’를 정당화하는 민족정체성 담론에 대한 고찰에 있는 듯하다. 기존의 사회경제사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매체분석을 통한 문화층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완하면서 이민자들이 겪는 차별구조와 그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작동원리를 새롭게 통찰했다는 장점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제2장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사적 분석이 가지는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라이씨떼 문제에서 출발해 이민자들의 통합문제를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해 다시 라이씨떼 문제로 돌아가 보는 역추적이 필요할 듯하다. 이는 결국 치밀한 사회경제사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한 공장을 연구한 로르 피티(Laure Pitti)의 분석이나, 방리유에 대한 아니 푸르코(Annie Fourcaut)의 연구 그리고 이민자 주거지에 대한 뵈상 비에(Viencent Viet)의 연구 등의 성과를 종합해 왜 라이씨떼 문제가 이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유익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이 씨줄의 역할을 한다면 이후 날줄의 역할을 하는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이 씨줄이 ‘프랑스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전제로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하는 배제의 동학이 공화국의 가치에 부응하는 프랑스인을 설정하고, 소수자에게 문화적인 강요를 하는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면서 프랑스인이면서(국적자) 프랑스인이 아닌(무슬림) 동시에 프랑스인이 아니면서(북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경계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했다면, 날줄이 될 연구는 다시 한번 ‘프랑스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경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한권의 책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북대학교, jajusdk@naver.com